

대형서점 POS 시스템 운영 문제 많다

교보문고의 자체 개발 및 시행을 보며 드리는 말씀

박전걸

대한출판문화협회

지난 5월 30일 마침내 교보문고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 몇차례나 개점이 늦추어지다가 이윽고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교보문고의 재개점은 여느 서점, 또는 여느 기업이 문을 여는 것과는 다르다. 각계 각층의 독자들은 개점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관심을 나타내곤 했다. 그만큼 일반독자에 미치는 영향과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넓다는 것이리라. 또한 교보문고의 재개점은 출판계, 특히 학술도서와 인문사회과학도서 판매에 많은 도움을 줄 것도 틀림없다. 그리고 교보문고는 서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교보문고는 이번 휴점 기간동안 많은 투자로 매우 훌륭한 내부시설을 갖추었다. 독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군데군데 눈에 띄고 있다. 또한 도서유통 전반을 관리하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도서주문에서부터 입고·판매·지불관리까지 정확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정보를 제공하며 첨단장비를 갖추고 세계적인 정보회사들의 CD-ROM·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도서를 취급하는 '첨단정보실'도 운영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독자들을 맞이하는 서점을 가졌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한 마음 감출 길 없다. 넓은 공간에 마음껏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해놓은 서가. 우리 출판문화의 수준을 나타내주면서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책들. 이런 책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 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뿌듯한 생각이 어찌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중복투자 인한 경비손실 초래

그러나 마냥 그렇게 가슴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만 드는 것은 아니다. 교보문고에서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POS의 운용 방법에 고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출판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출판관련 산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출판시장 개방을 앞두고 출판계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기르고 출판계 내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전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과 PO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출판유통의 합리화·정보화·국

교보문고에서 자체 개발·시행하고

있는 인스토아 마킹은

ISBN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우려가 있다. 몇몇 서점들에서

교보문고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판업계의 소스

마킹 의지를 약화시켜 ISBN제도의

정책을 지연하거나 해칠 수도 있게

된다.

제화를 이뤄 우리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빨리 뿌리박을 수 있도록 출판협회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전출판사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도 한다. 그리고 바코드 심벌만으로 이루어진 오더 북(Order book: 주문도서목록)도 제작 중이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책에는 당연히 바코드 심벌이 표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신규출판사들은 바코드 심벌이 표기되지 않은 책은 독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서점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는 전집물까지 바코드 심벌을 표기하고 있다.

출판계에서 바코드 심벌의 표기 즉, 소스 마킹을 하는 목적은 서점에서의 POS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점에서 POS운용을 위해 마킹을 하는 경우 즉, 인스토아 마킹은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의 추가부담을 필요로 한다. 가뜰이나 경영상 임대료 인상과 인력난으로 어렵고 힘든, 서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출판계는 소스마킹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92년 6월말 현재 납본된 신간도서의 소스 마킹은 약 34%에 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곧 ISBN 바코드 심벌을 이용한 도서의 수·발주와 재고관리를 할 수 있는 때가 결코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ISBN제도는 출현의 오랜 노력과 이에 대한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호응,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마당에 모든 책에 일괄적으로 마킹한 전표를 부착하여 운용하는 교보문고의 인스토아마킹POS는출판계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아니다. 교보에서의 인스토아 마킹은 몇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관련업계의 중복투자로 인한 경비 손실이다. 출판사에서 소스 마킹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모든 책에 인스토아 마킹을 하는 것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인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여기에 일어나는 추가부담 경비는 곧 독자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출판사와의 거래조건 약화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둘째, 반품도서의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 재활용이 불가능함으로써 출판사의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안한 정가 책정으로 독자들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또한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떨어트린다. 소스 마킹이 자리를 잡으면서 바코드 심벌 또한 디자인적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따라서 표지 디자인 작업 때 이를 감안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자들은 책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표지디자인도 책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마킹한 전표가 시일이 경과되면서 심하게 더럽혀지므로 판매전략의 방법으로 표지디자인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판매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어렵게 도입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ISBN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보문고에서의 인스토아 마킹은 전서점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결과를 빚고 있다. 몇몇 지방서점에서는 교보문고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인스토아 마킹을 전제로 한 POS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한다. 교보문고는 출판유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런 시스템은 출판업계의 소스 마킹 의지를 약화시켜 ISBN제도의 정책을 지연 또는 해칠 위험을 안고 있다.

데이터간의 호환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

다섯째, 인스토아 마킹은 데이터의 호환성이 없다. ISBN·POS제도의 목적은 출판관련 산업의 과학화와 합리화, 그리고 유통의 효율성 도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체코드를 사용한 인스토아 마킹은 이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출판의 기능을 확대하고 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지정보의 서비스 확대가 우선적이다. 출판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ISBN를 이용한 출판유통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의 호환성이 없으므로 교보문고의 데이터는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 나라의 출판에 관한 자료의 부실을 뜻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각기 구축되어 있는 4개 출판유통VAN이 이제는 호환성을 갖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려고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ISBN를 이용한 정보유통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교보문고에서 몇년 전부터 인스토아 마킹을 전제로 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ISBN체제로 바꾸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문제 때문에 전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코드를 부정하고 자체코드를 고집한다면 세계 최대의 서점이라는 자긍심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점에서의 POS시스템을 운용하기에는 ISBN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다. 또 단품관리를 하기에는 코드체계가 맞지 않다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내부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POS프로그램의 보강 또는 어떤 내부적인 표기를 통해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에 일괄적으로 인스토아 마킹 전표를 부착한다는 것은 또다른 면에서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서점이 아집을 버리고 이제라도 프로그램의 보강이나 내부거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바코드 심벌이 표기된 책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과거 교보문고의 개점때나 지방 체인점 파동때 보여준 출판계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